

# 벤투호와 마요르카는 다르다...이강인 활용법은?

1년6개월 만에 벤투호 복귀...선발보다 후반 조커 활용  
“공격적으로 기술·판단 뛰어나지만 수비는 발전해야”

부활한 이강인(21·마요르카)이 1년6개월 만에 축구대표팀에 돌아온 가운데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어떤 활용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벤투 감독은 1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9월 A매치에 나설 선수 명단 26명을 발표하면서 이강인을 미드필더에 뽑았다.

이강인이 대표팀에 오른 건 지난해 3월 일본과의 친선경기(0-3 패) 이후 처음이다.

벤투 감독이 18개월 만에 이강인을 다시 부른 건 이번 시즌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보여준 활약 때문이다.

이강인은 정규리그 5경기에서 최근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1골 3도움)를 기록했다. 지난 11일엔 강호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시즌 3호 도움을 추가했다.

포르투갈 신성 중앙 펠리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리그 도움 공동 1위다.

달라진 건 도움뿐만이 아니다. 이전보다 빨라진 스피드에 수비 부담까지 향상됐다.

다만 달라진 경기력에도 이강인이 벤투호 주전 자리를 꿰찰지는 지켜봐야 한다. 벤투 감독은 과거 이강인이 발렌시아에서 꾸준히 필때도 그보다 이재성(마인츠), 권창훈(김천), 나상호(서울), 엄원상(울산) 등을 더 선호했다.

벤투 감독은 이번 9월 A매치에 이강인을 호출한 이유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에도 대표팀에서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수행할지 여부에 대한선 여전히 물음표가 따르는 듯했다.

벤투 감독은 “소속팀 마요르카에서 활용법을 지켜봤다. 대표팀에서 활용법은 고민하고 있다”면서 “공격적으로 기술과 판단이 뛰어난 선수지만, 수비는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투 감독은 상대에 따라 포메이션에 변화를 주지만, 기본적으로 4-2-3-1 혹은 4-3-3 전술을 기본 뼈대로 한다.

최전방에 황의조(울림피아코스)를 중심으로 좌우에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튼)이 서는 게 벤투호의 플랜이다.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 한자리를 두고 남은 2선 미드필더들이 경합하는 구도인데, 현재로서는 이재성이 가장 주전에 가까운 선수가 될 수 있다. 지난 6월 국내에서 치른 A매치 4연전에선 유럽과 ‘작은’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이 처진 공격수 자리에 포진해 가능성은 보이기도 했다.

당시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운 ‘손흥민+정우영’을 중앙에 배치한 ‘센트럴유영’은 본선에서 강팀을 상대로 가동해볼 만한 옵션이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이강인이 스페인 무대에서 공격 포인트를 꾸준히 쌓아도 벤투호에서 기존 경쟁 구도를 뒤흔들기 쉽지 않아 보인다.

벤투호와 달리 마요르카는 5명의 수비수를



둔 5-3-2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강인은 베타 무리키와 투톱인 동시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포지션을 부여받는다.

프리메라리가의 역할로 전방에서 많은 공간을 부여받는다.

반면 벤투호는 그보다 아래서 빌드업에 관여해야 하며, 좌우 측면 공격수들과의 포지션 체인지가 원활해야 한다. 벤투 감독이 멀티 플레이어 성격을 가진 이재성, 권창훈 등을 선호하는 이유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수비할 때(상대 볼 소유시) 측면으로 이동해, 이 전보다 사이드 포지션에 익숙해졌다는 점이다.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은 “이강인이 주전이 아닐 확률이 높다. 기존 4-3-3 포메이션에서

공격 2선의 한 자리로 교체 투입되거나, 득점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벤투호가 6월 A매치 4연전에서 다양한 포메이션을 실험했는데, 작은 정우영이 섰던 위치에서 상대 체력이 떨어지 후 반 25분 이후 투입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활용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벤투 감독은 이번 소집에도 전술적인 이유로 올 시즌 K리그1에서 득점 공동 4위에 올라 있는 이승우(수원FC)를 뽑지 않았다.

공격 포인트 등 수치가 아무리 좋아도 자신의 전술과 맞지 않으면 외면한다. 이강인도 이 경계를 무너트려야 카타르월드컵으로 가는 티켓을 잡을 수 있다.

김하성, 4경기 연속 무안타  
침묵...시즌 타율 0.248  
샌디에이고, 시애틀 2-0으로 제압

김하성(27·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4경기 연속 무안타로 침묵했다.

김하성은 14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T-모바일파크에서 열린 2022 메이저리그(MLB)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경기에서 6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지난 10일 LA 다저스전부터 4경기 연속 무안타다. 8일까지 0.256이었던 시즌 타율은 0.248(44타수 11안타)로 떨어졌다.

2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2루수 뜬공으로 몰란 김하성은 4회초 1사 1루에서 중견수 플라이를 치는데 그쳤다.

김하성은 6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루킹 삼진을 당했다.

그는 8회초 1사 1, 3루에서 스윙트 번트를 시도했지만, 타구가 투수 정면으로 가면서 아웃되고 말았다. 3루 주자가 홈을 밟지 못했으니 1루 주자가 2루까지 나아가면서 김하성의 번트는 희생번트로 기록됐다.

샌디에이고는 시애틀을 2-0으로 꺾고 2연패에서 탈출했다.

4회초 월 마이어스의 적시 2루타로 선취점을 올린 샌디에이고는 선발 다르빗슈 유의 호투로 리드를 지켰고, 9회초 오스틴 놀라, 주릭슨 프로피의 연속 안타와 상대 실책, 후안 소토의 땅볼 등을 엮어 2점을 더했다.

8일 동안 7개의 삼진을 속아내며 2피안타 무실점으로 패투를 펼친 다르빗슈는 시즌 14승(7패)을 수확했다.

타이 2-0으로 앞선 9회말 등판한 샌디에이고 마무리 투수 조시 헤이더는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삼진으로 잡으며 시즌 32세이브째를 챙겼다.

뉴스



발목 인대 손상' 박병호  
재활 선택 “PS 출전 위해”  
지난 10일 키움전서 발목 부상

오른 발목을 다쳐 남은 정규시즌 경기 출전이 불가능해진 KT 위즈의 베테랑 거포 박병호(36)가 수술 대신 재활을 택했다. 포스트시즌(PS) 출전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KT 관계자는 13일 “박병호가 오른쪽 발목 앞뒤 인대 손상(파열) 진단을 받았다. 전문의는 수술보다 4주 정도 재활하는 처방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 본인도 PS 출전을 위해 수술보다 재활로 치료하기를 희망한다. 재활 경과를 지켜보고 PS 출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호는 지난 10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 당시 경기에 4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한 박병호는 2회초 좌중간 안타를 날린 뒤 2루까지 내달렸다. 박병호는 2루를 밟으면서 키움 2루수 김태진의 태그를 피하려다가 오른 무릎이 앞으로 꺾이면서 발목을 접질렀다.

부상 직후 병원으로 이동해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을 받은 박병호는 인대가 손상됐다는 소견을 들었다. 추시 연휴가 끝난 뒤인 이날 전문의에게 재검진을 받은 박병호는 최종적으로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다.

4주 동안 재활해야하는 박병호는 10월 8일 종료 예정인 정규시즌 이전에는 돌아오지 못할 전망이다.

올 시즌 120경기에서 타율 0.273 33홈런 93타점으로 활약하며 중심타선을 이끈 박병호의 이탈은 준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KT에 대형 악재다.

현재 홈런 부문 선두를 질주 중인 박병호는 2위 호세 피렐라(삼성 라이온즈·24개)에 9개 차로 앞서있지만, 더 이상 홈런 수를 늘릴 수 없어 선두 수성이 불투명해졌다.

## 손흥민 8경기째 침묵...토트넘, 스포르팅에 시즌 첫 패배

‘슈팅 0개’ 손흥민, 선발 출전했으나 시즌 첫 골 실패



손흥민(30)이 2022~2023시즌 개막 후 공식전에서 8경기 연속 침묵한 가운데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는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토트넘은 14일(한국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의 조제 알발라드 경기장에서 열린 스포르팅(포르투갈)과의 2022~20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D조 2차전 원정 경기에서 0-2로 졌다.

손흥민은 선발로 출전해 후반 27분까지 뛰다 데얀 콜루엡스키와 교체됐다.

이날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손흥민은 시즌 첫 골 사냥에 또 실패했다.

스포츠링에선 일본 국가대표 모리타 히데마사가 선발로 나와 후반 27분까지 뛰며 손흥민과 ‘미니 한일전’을 펼쳐 판정승을 거뒀다.

지난 시즌 23골을 터트려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EPL 공동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 개막 후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한 공식전 8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다.

EPL은 6경기에 출전해 득점 없이 도움 한 개만 기록했고, 챔피언스리그 2경기에서도 득점이 없다.

이날 손흥민은 해리 케인, 히사롤리송과 함께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격했다.

경기 전 포메이션을 암시했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을 비롯해 주축 선수들을 데려 내세웠으나, 시즌 첫 패배로 고개를 숙였다.

토트넘은 전반 42분 히사롤리송이 원발 슈트로 상대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로 득점이 무산됐다.

콘테 감독은 골이 터지지 않자 후반 27분 손흥민 대신 콜루엡스키를 투입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4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한 스포르팅과 달리 토트넘은 이날 단 한 장의 교체 카드만 썼다.

무승부로 끝날 것 같던 승부는 후반 막판에 갈렸다.

후반 45분 코너킥 찬스에서 스포르팅의 파울리뉴가 헤더로 0의 균형을 깼다. 이어 후반 추가시간엔 교체로 들어간 아르투르 고메스가 추가골로 쐐기를 박았다.

D조에서 1승1패(승점 3·골득실 0)가 된 토트넘은 2연승을 달린 스포르팅(승점 6)에 이어 2위에 자리했다.

같은 시간 마르세유(프랑스)를 1-0으로 누른 프랑크푸르트(독일)는 3위(승점 3·골득실 -2)가 됐다. 2연패를 기록한 마르세유는 조 최하위(승점 0)에 머물렀다.



혼합복식 금메달 전남도청 정상희(왼쪽), 이문재 코치 / 단식 금메달 전남도청 윤솔희(왼쪽), 이문재 코치 / 개인복식 동메달(왼쪽부터 박빛나, 이문재 코치, 김운진)

## 전남도청 소프트테니스팀, 실업추계연맹전 쾌거

정상희 혼복우승·윤솔희 단식 우승·개인복식 3위...금 2개 동 1개

전남도청 소프트테니스팀이 한국실업소프트테니스 추계연맹전 혼복, 단식에서 정상에 올랐다.

전라남도에서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안성에서 개최된 “2022년도 추계 한국

업예진(문경시청)을 5-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지난 “국무총리기 전국대회”에 이어 혼합복식 2관왕을 차지했다.

여자단식에서는 윤솔희(전남도청)가 준결승에서 김미림(화성시청)을 4:0으로 가볍게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 결승에서 진수아(옥천군청)와 치열한 접전 끝에 4:3으로 승리하며 정상에 차지했다.

이어서 개인복식에서는 김운진-박빛나(이상 전남도청)이 김미애-김지영(옥천군청)과

김지원-김지악(경남체육회)을 5-0으로 이기며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지다영-곽은빈(안성시청)에게 5-4로 아쉽게 패하며 동메달에 그쳤다.

전남도청 이문재 코치는 “우리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 매우 기쁘고, 항상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전남도청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10월에 개최될 전국체육대회를 잘 준비해 좋은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재환기자